혼자가 아니라 '우리'라서 뭐든 할 수 있다고요.

담임과정 교사 이주영

동장군이 다가오는 봄을 밀어내, 대지는 차가운 공기로 밭에 나선 아이들 발끝을 시리게 합니다. 방학 동안 준비물로 챙겨오라던 각자의 오줌을 받은 페트병을 귀하게 들고 옹기종기 모입니다. 풍성한 결실은 봄부터 땅을 윤기나게 하는 거름임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받아 삭혀 놓은 오줌을 한데 모으는 것은 신기하고 왠지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특별함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알싸하고 비릿한 공중 화장실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숯과 왕겨를 섞어 뚜껑을 덮어둡니다. 두 달이 지나면 정말 달큰한 냄새가 날지 궁금합니다.

3월 삼짇날 시농제를 앞두고 쟁기질을 했습니다. 네 명의 친구가 앞서서 쟁기 당기는 줄을 어깨에 메고 뒤에 두 친구가 쟁기에 발을 얹고 힘주며 밉니다. 어깨도 아프고 쟁기가 생각보다 잘 끌리지 않았지만 땅속 벌레들도 깜짝 놀라 깰 만큼 깊이 묻힌 흙이 올라옵니다. 텃밭 한편에 삭힌 깻묵거름을 섞어 이랑과 고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씨앗농장에서 보내준 토박이 씨앗과 귀한 볏짚을 보내주신 솔뫼 아주머니, 1학년 때부터 우리에게 맛난 콩을 보내주신 콩할머니, 귀한 모종을 구해주신 부모님 덕분으로 우리는 어린 농부가 되었습니다. 넉넉히 보내주신 토박이 씨앗은 학교와 동네 이웃들에게 나눔도 할 수 있었습니다.

쟁기질

이랑 고랑 만들기

초여름 텃밭에서 김매기

어린 농부가 밭농사만 지을 수는 없지요. 쌀농사는 토박이 씨앗인 북흑조와 붉은 메라는 토종 볍씨 싹을 틔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북흑조는 검은 껍질의 쌀이고 붉은메는 수염이 긴 붉은 껍질의 쌀입니다. 소금물에 담가 가라앉은 볍씨만 거둬 60도의 물속에 10분 동안 소독하고 낮에는 물에 담그고 밤에는 건져 촉이 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촉 오른 볍씨를 손가락으로 조심히 집어 상토와 고운 모래, 황토로 덮은 요에 촉을 밑으로 심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적신 부직포를 이불처럼 덮어줍니다. 부직포가 울룩불룩 올라와 들춰보면 싹이 곧게 올라와 있습니다. 싹이 연둣빛으로 진해질 즈음 부직포를 걷어내니 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강화

도감뿌리 할아버지가 보내준 모와 우리가 키운 모로 세 종류의 벼를 심었습니다.

푸르배미 모내기

북흑조, 붉은메 벼

벼베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에 함께 도전하는 힘을 갖습니다. 눈으로 봐오던 많은 일들을 손수 해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배우고 모두가 다 같이 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성취감과 인내심을 배웁니다.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곱째 날 '낙원'이라고 불리는 세상에서 한 번 살고 싶다고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질 때 일찌감치 사람이 세상에 등장하지 않은 것을 알겠다며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특권에 감동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나라 말로 이름을 지었어요?'라고 묻는 아이들입니다.

10살 아이들은 두 발을 디딘 세상에서 우리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나의 몸과 같은 집은 단단히 땅 위에 곧게 서 자리잡습니다. 우리 집을 짓기 위해 교실 바닥에 누워 오각형의 천장을 봤습니다. 우리가 지을 집도 오각형 지붕입니다. 황토로 벽돌을 만들어 차곡 차곡 쌓아 올린 흙집입니다.

집과 마을 만들기

황토벽돌 쌓기

꾸미기 체조

집 짓기를 마치고 나니 월동 준비를 할 때입니다. 추수를 하고 콩타작을 하고 가을에 심어 키운 배추도 뽑아 김치도 담급니다.

우리는 한 해 의, 식, 주를 해결한 수고로운 시간을 마무리해 갑니다. 우리말과 글 시간에 바르고 정확한 목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고 작은 연극을 무대에 올립니다. 아이들이 힘써 선보인 연극은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입니다. 또 체육시간에는 '꾸미기 체조-집짓기'를 배워 틈날 때마다 연습하더니 발표날에는 최선을 다한 뒤 아이들끼리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10살, 3학년 끝자락에서 단단히 땅 위에 서 있는 아이들이 정면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준비되었나 봅니다.

집짓기

장인의 날

모내기

4학년 동네학 에포크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

담임과정 교사 이수진

4학년이 되면 아이들을 더 크고 넓은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도전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루비콘을 지나 본격적으로 땅의 여행을 시작하려는 4학년에게 <동네학> 에포크는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수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갈 때쯤 "동네학 또 하고 싶어요." "동네학만 계속하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귀여운 아이들이 많았죠.

동네학은 지리학 수업의 첫 관문입니다. 4학년 동네학은 나의 위치에서 해가 뜨는 곳과 지는 곳을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등굣길에 매일 해를 관찰하고 아침 산책길에도 친구들과 언덕에 올라가 해가 어디쯤 왔는지 살펴봅니다. 자연의 현상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보는 것은 일상의 명

상과도 같습니다. “왜 똑같은 해를 맨날 봐요?” 하고 툴툴대는 아이도 있었지만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연습은 아이들의 내면을 풍요롭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교실로 들어와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 새가 되어 봅니다. 무섭다며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길 주저하는 아이도 있지만 친구들이 올라가니 함께 용기를 냅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내가 매일 만나는 우리의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사물함과 내 자리는 어디이고, 내 친구 자리는 어디쯤인지 눈으로 보고 간단한 조감도도 그려봅니다.

이제는 나와 세상을 거리 두고 볼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아이들, 주변의 세상에 강한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연계된 수업과 도전에 기꺼이 내적으로 동참하며 즐거워합니다.

아이들은 동네학 수업을 하며 집과 학교를 벗어나 더 넓은 곳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4학년 아이들과 처음으로 신나는 버스 여행도 하였습니다. 부모님 없이 버스를 타본 경험이 처음인 친구들도 많았고, 버스 하차 벨을 언제 어떻게 눌러야 할지 몰라 헤매는 귀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혹여나 길을 잃을까 부모님과 선생님 전화번호를 깨알같이 적어오기도 하였지만 그런 긴장은 곧 기분 좋은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서남북을 손으로 그려보며, 버스와 지하철 노선표를 자세히 읽고, 종이 지도를 보며 목적지를 찾아 떠났던 여행! 아이들은 그 여행에 온 마음으로 집중하며 친구들과 신나는 동네학 모험을 마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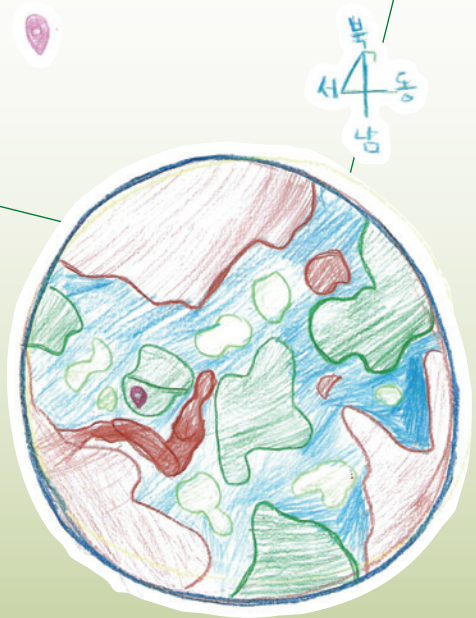
학교와 옥길동 그리고 부천시를 여행하며 마음속에 나만의 고향이 그려졌을 아이들. 그 고향을 가슴에 품고 아이들은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하게 되겠지요. 4학년 동네학 에포크는 교사와 아이들 모두 배우고 경험하는 매 순간을 사랑했던 수업이었습니다.

동네학 수업을 마치며 쓴 학생의 글

오늘은 진짜로 동네학 에포크 마지막 날이다. 동네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점은 우리가 서로를 믿는 마음과 '협동심'이 많이 보였다는 점이다.

나는 동네학이 끝나는 게 정말 정말 싫다.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네학이 끝났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선 영원히 남을 듯한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더 좋았던 건 동네학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학교에서 "하지제 1박 2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으로 하지제 날에 더 도와주고 배려해 주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다.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하지만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그런 점이 아쉽지만 친구들과의 협동, 배려, 믿음 이런 것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



5학년의 고대역사

담임과정 교사 김수미

기나긴 꿈결의 세상을 뚫고 5학년이 된 아이들입니다. 5학년 시기는 유년기와 사춘기 사이의 중심으로, 평화롭게 아동기의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개별성이 세상과 더욱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특별한 경험 속에서 강화되어 갑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성장해가는 것과 같이 역사 속의 인간들의 성장을 함께 바라봅니다. 고대 이야기를 생생한 이미지를 통해 상상하며 배워 갑니다. 고대 역사 속의 인물들이 사용하던 파피루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고 파피루스에 그림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황토 잉크로 벽화를 그려보기도 하며 고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나갔을지 어떤 생활들을 했었을지 생생하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5학년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어우러지는 아틀란티스, 고대인도,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한국 고대 역사 이야기를 통해 육화된 인간의 삶을 배워갑니다.

"역사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고대 역사 에포크.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역사 에포크에 들뜬 5학년 아이들은 동그란 눈을 뜨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란 '선사시대,' '선조들의 이야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과거의 일,' '우리가 살기 전 시대의 이야기' 등 단

편적인 생각들을 펼칩니다.

이야기로 들려주는 아틀란티스의 이야기부터 고대 인도와 페르시아의 이야기들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 원형적인 인간에 대한 상으로 삶의 뿌리를 만들어 줍니다. 때로는 마누 이야기의 마누가 되어보기도 하고, 생명의 풀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비밀을 찾기 위해 매의 눈이 되기도 하고, 선사시대의 여러 가지 유물을 살펴보면서 그 시대의 생활상을 스스로 추측해 보고 깊이 상상해 냅니다. 또한 역사 속 이야기를 통해 접한 고대 올림피아드는 한국의 모든 발도르프 학교 5학년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고대 올림피아드의 시간은 조화로운 5학년 아이들의 신체적인 발달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협력하는 올림픽의 정신을 경험으로 배워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펼쳐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역사 속 인류의 이상과 노력이 현대까지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내적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각 민족마다 어떻게 현대의 뿌리가 된 고대의 정신이 발휘되었는가, 그 힘이 어떻게 현재 자신의 모습과 이어질 수 있는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아이들의 내면에 도덕적 힘이 자라날 수 있는 바탕이 형성됩니다. 전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개별성이 드러나는 고대 역사의 시기. 동, 서양을 막론하고 현대 문화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고대 역사는 여전히 신화와 이미지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영혼에 전달됩니다. 에포크 수업을 통해 아이들 또한 자신의 개별성을 드러내며 역사 속의 사람들처럼 인간의 성장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어느새 성장해버린 아이들은 에포크 초기에 아이들이 가졌던 역사에 대한 생각이 한 층 나아갑니다.

에포크를 마치며,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가 에포크를 시작하면서 했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란 도대체 무엇인데?"

같은 질문이지만 더 이상 대답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시간을 쌓으면, 그것이 바로 역사"

"오래전 이야기나 그 시대의 이야기를 적은 오래된 이야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밝혀내는 역사"

"현재도 시간은 흘러간다. 과거는 길어지고, 과거가 미래가 된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역사는 점점 길어진다."

"나의 지나간 시간. 나는 많은 역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아이들의 대답이 깊어진 만큼 역사에 대한 생각도 커져갑니다. 5학년 아이들에게 역사는 더 이상 먼 시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 맞닿아 있는 하나의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딛고 사는 이 땅의 구체적인 고대 역사를 자신의 삶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형성해 냅니다.

올림피아드

“세상을 향한 걸음으로 깨치는 땅의 이치”

담임과정 교사 김나현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 몸을 키우고, 마음을 성장시키며 지구에서 건강하게 자리 잡고 살아가기 위한 목표를 가집니다. 그 목표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아이들은 세상에 왔고 세상과 자신 사이의 공간을 통해 단단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지구의 땅 위에 건강한 몸과 영혼을 세우고,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를 확실히 아는 교육이 지리학입니다.

지구는 둥글게 연결되어 있고, 나는 그 지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내 옆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 나와 관계된 공간과 사람들을 알아나가며 나의 영혼을 지상과 연결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갑니다.

계획대로라면 보통 5학년에 지리가 시작되지만 코로나로 변수가 생겨 우리 반은 6학년 시기에 지리학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6학년으로 성장한 아이들은 지리학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지리와 광물이 연결된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땅의 지형을 이해하기 위해 지구 속의 화산 폭발과 그 폭발로 솟아오른 땅을 이야기로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솟아오른 땅이 산이 되고,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강이 되어 흐르며, 그 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산이 어떤 이유로 형성되었고, 그 산 주변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는지 어떤 특징으로 살고 있는지, 그 지역의 자원과 생태적인 특징을 알아 나갑니다. 지리와 땅의 특징으로 사람들의 문화가 다르며, 그 문화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도 나눕니다.

강원도 태백의 검룡소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강원도 정선의 아우라지를 만들고, 동강으로 이어져 굴곡진 모양을 드러냅니다. 긴 동강의 물줄기는 아름다운 한반도 마을을 지나 단양팔경과 청풍호를 거치고 경기도 여주를 통과하여 남한강 물줄기를 이루는 긴 여정을 끝으로 서해와 만나게 됩니다. 강줄기가 바다로 흘러들며 바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동해의 깊은 바다부터 남해의 다양한 섬과 섬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서해를 탐험합니다. 아이들은 서해(황해)에 대한 질문들이 비교적 많았고, 갯벌이 있는 곳은 바다 같지 않다고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갯벌이 가진 생태계 역할을 이야기 나누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눈빛과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토사가 차곡차곡 쌓여 형성된 갯벌은 겉으로 보면 지저분해 보이지만, 갯벌은 하천으로부터 흘러온 오염물질을 자연에 해롭지 않게 분해시켜주는 자연의 정화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밀물과 썰물이 갯벌을 오고 가면서 산소를 공급하여 풍부한 영양분을 가진 살아 있는 생명의 땅이 되어 줍니다.

수많은 생명이 살며 정화 역할을 하는 갯벌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새롭게 받아들여졌고, 갯벌에 대한 상을 생태계를 위한 의미로 그릴 수 있었습니다.

지리의 배움은 이야기와 묘사 속에서 지리적 특징과 이미지를 만들어 갑니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선생님을 모시고 듣는 선생님의 어린 시절 고향 이야기는 내가 그곳에 살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고, 사람과 땅, 지역이 만나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어 생생한 배움이 됩니다.

"전 과목의 성과가 합쳐져서 모든 길로 함께 흘러들어야 한다." -슈타이너-

교실에서 배운 지리학, 광물학, 식물학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강원도 태백시를 학급 여행지로 정해 탐방한 것은 배움에 대한 내적 확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태백산을 오르며 산 중턱의 너덜바위들이 즐비하게 있는 것을 보며 화산 폭발의 장면을 불러올 수 있었고, 산이 형성되고 바위가 만들어지는 상이 그려지는 현장의 배움이 되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에 표시된 바위와 이야기들은 태백지역의 특징과 문화가 잘 담겨 있었습니다. 태백산 두문동재를 걸으며 길동 아재가 들려주는 태백산 식물 이야기는 아이들 마음에 인상 깊게 남아 갯벌과 함께 자연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태백 탐방을 한 아이들의 발걸음에는 이 땅과 내가 단단하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땅과 관계 맺는 발걸음이 단단할수록 아이들의 잠재된 능력은 발현되고, 발현된 경험을 바탕으로 삶에 대한 용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지구를 하나의 살아있는 아름다운 자연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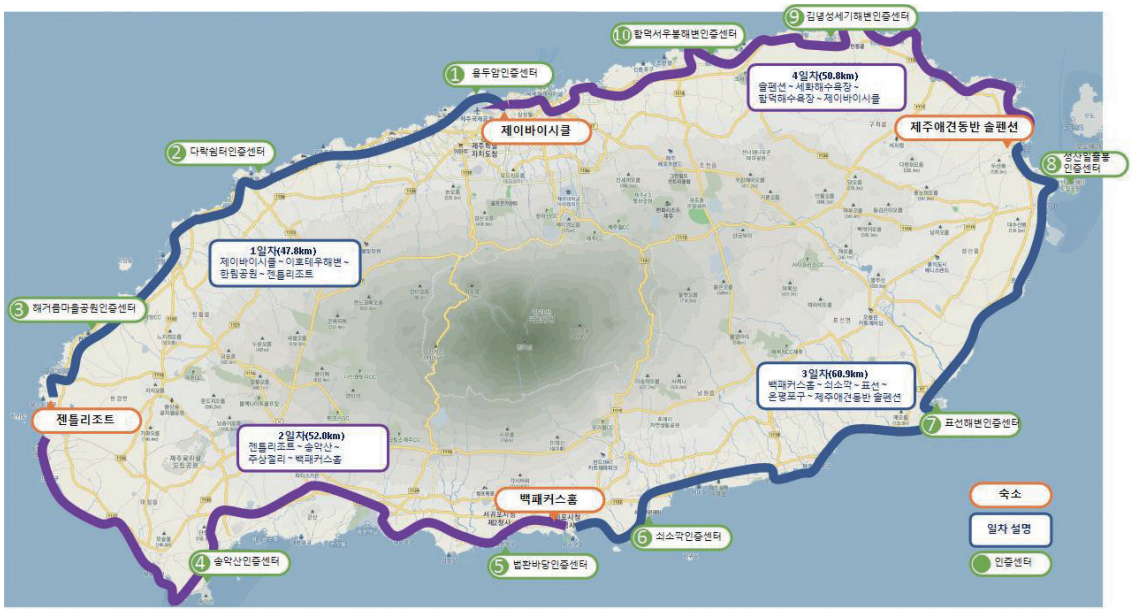
화랑도

‘새로운 나의 길을 찾아, 바퀴를 굴린다.’

담임과정 교사 오윤선

본격적으로 사춘기에 접어든 7학년 학생들, 몸과 마음의 변화가 낯설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나를 만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또 다른 여행길을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나의 미래와 나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며 궁금해합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우정은 깊어지기도 하고 엉켰던 실타래를 풀어가는 시도를 해보기도 합니다. 새로운 영혼의 길을 찾아 헤매는 7학년 학생들을 위해 우리는 6박 7일 동안 약 234km 길이의 제주도 라이딩을 완주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몸이 무거워지는 학생들에게는 너무 매력 없는 여행이었지만, 바퀴를 구르며 자신의 한계를 온몸으로 느껴보고 친구들과 어려운 고비들을 응원하며 넘어보는 경험을 앞으로의 학생들에게 큰 의지의 힘을 키워줄 수 있기에, 아이들의 불평은 담임에게는 그저 즐겁게 지저귀는 새소리 같습니다.

우리는 1학기 때부터 학급 회의를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 갔습니다. 제주도까지 가는 방법, 라이딩하는 날수와 쉬는 날, 오후 시간 탐방 혹은 명소 찾기, 숙소, 식사 준비, 여행경비 마련 방법, 자전거의 종류, 용돈의 범위 등 소소한 것들은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일도 아직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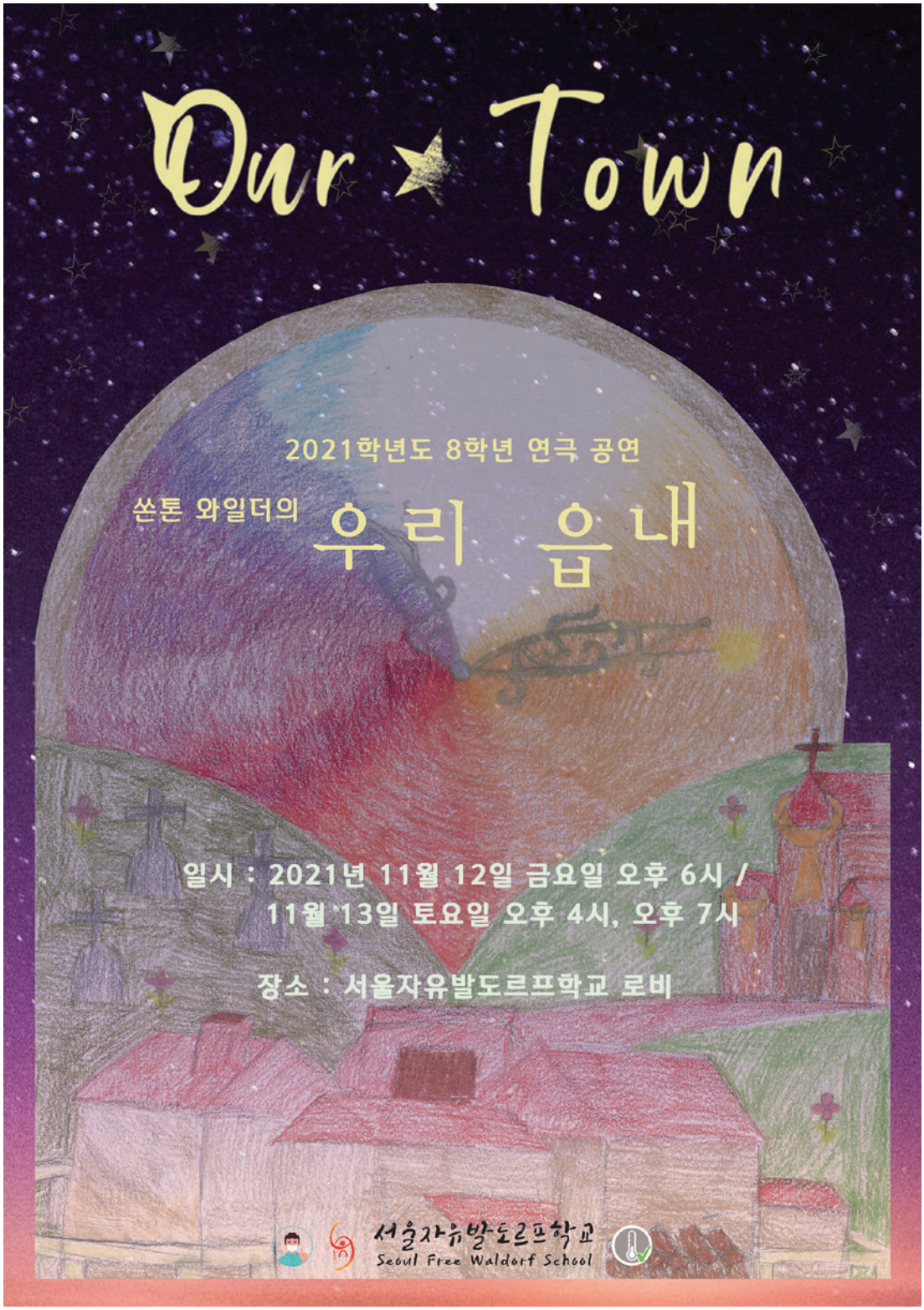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거쳐 학생들은 일일 먹거리 판매와 엽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등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기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길잡이, 먹거리, 회계, 레크레이션 팀으로 나누어 여행 일정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3번의 일정을 변경해야 했고, 자가격리로 인해 출발이 늦어지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계획을 더 미룰 수 없어 학급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후 첫 번째 관문은 자전거를 대여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웅웅거리는 바람 소리가 잠을 깨웠습니다. 빗줄기는 너무 거세고 렌트한 차량에 결함이 발견되어 우리는 숙소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우리는 비와 바람을 뚫고 5km를 걸어서 자전거 대여점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벌써 아이들의 손과 발이 얼었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으로 몸을 데운 후, 길잡이를 따라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강풍은 우리를 호락호락 놔주지를 않네요. 저 깊은 바닷속 모래까지 삼켜와 토해내는 파도, 옆에서 불어오는 강풍에 핸들이 돌아가 휘청거리고, 자신의 몸무게로 지탱할 수 없어 몇 번이고 바람에 밀려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리에 쥐가 나 절로 눈물이 또르르 흐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학생들. 어느새 이 아이들의 코와 귀는 빨개지고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솟구쳐 오지만 옆에 친구들이 있어 페달을 구르고 또 구릅니다. 선두의 길잡이는 교사 없이도 친구들을 살피며 낯선 길을 찾아내고 뒤따르는 친구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젖 먹던 힘까지 보태며 친구들과 함께 달려갑니다. 이렇게 매일 학생들은 약 60km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새로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산방산을 지나야 하는 길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자전거의 펑크와 매서운 맞바람은 너무 당연한 일이 되었고, 거짓말처럼 수십 개의 오르막을 오르고 또 올라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또 비가 오면 우리는 멈춰 우의를 챙겨입고 빗속을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달리다 무지개도 볼 수 있으니, 먹구름 사이로 잠깐의 햇살이 스미는 장관을 볼 수 있으니, 귀여운 참새떼의 놀이를 구경하며 달콤한 사탕 하나 입에 넣을 수 있으니, 괜찮아? 하며 나를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있으니 우리는 계속 앞으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다에 빠지면 혹시 라이딩을 멈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날 만큼 체력적으로 힘든 아이들,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친구들을 목표지점까지 인도하기 위해 내내 긴장을 하는 아이들, 친구들을 뒤에서 밀어주며 힘을 실어주는 아이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한계를 온몸으로 느끼며 다 함께 6박 7일의 목표를 완수하였습니다. 만약 내가 혼자였으면 가능했을까요?

이제 라이딩 여행은 마침표를 찍으며 먼 기억 속으로 가라앉겠지만, 새로운 나의 길을 찾아 출발하는 7학년 학생들은 그 길에서 헤매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장애물을 만나도 괜찮다는 자신감과 확신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옆에 친구들이 함께하겠지요.

나의 길을 찾아 끊임없이 바퀴를 굴리는 7학년 학생들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Our Town
2021학년도 8학년 연극 공연
쏜톤 와일더의
우리 읍내
일시 :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 /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 오후 7시
장소 :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로비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Seoul Free Waldorf School

우리 읍내

살면서 자기 삶을 제대로 깨닫는 인간이 있을까요? 매순간마다요?

담임과정 교사 이지영

발도르프 교육에 있어 8학년의 연극 공연은 지난 8년간의 담임과정을 마무리하는 귀중한 활동이라는 것을 학생들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만 14세 나이가 되면 전에 비해 세상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자기 내면의 감성으로 대하는 면이 매우 강하게 작용합니다. 호감과 반감이 쉴 새 없이 바뀌며 자신의 드라마를 그려냅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의 연극 활동은 자신의 내면을 알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극 선택에 있어서 반의 상황을 고려하며 학생들의 발달 상황과 반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여 어떤 목표와 어떤 능력을 함양할 것인가를 연결하도록 합니다.

연극 대본이 정해지면, 학생들과 함께 읽으며 내용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본의 각 역할을 통해 청소년들의 삶이 깨어나는 계기를 줄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교육적 관점을 받아들이고, 역할 분배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연극의 내용, 역할 등에 대한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내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서로 듣고 교환해 나가면서 학급 전체가 각 학생의 강점과 약한 점을 서로 알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나가도록 합니다. 연극은 아주 강한 사회성을 이끄는 작업입니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연극 활동을 대단히 감성적으로 대하며 자신의 상상력으로 배우의 역할을 경험합니다.

'나는 다른 존재의 사고, 감정, 동기를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 난 그 존재를 이해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 존재의 일부이고, 내 안에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시를 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내 영혼이 무대이며, 난 그 역할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가능한 한 내적으로 느껴지는 극 중 존재와의 연결을 통해 역할을 해내도록 스스로 배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배워왔던 과목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텝 팀의 구성원으로서 각 학생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며, 무대그림, 소품, 의상을 기획하고, 도움을 받아 실현해 나갑니다. 중요한 경험 중의 하나는 시간에 대한 기획입니다. 8학년의 연극 활동은 새롭게 능력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갖춰진 능력을 새롭게 한 단계 높이는 활동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공연 당일의 경험은 학생들의 내면에 깊이 새겨져 발도르프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경험을 깊은 감동으로 되새깁니다. 왜냐하면 그 감동은 그간 8년 담임과정 동안 익혔던 재능과 능력들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미래의 상급을 위한

가장 중요한 내적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학기부터 꾸준히 시작된 자세, 호흡, 발성 연습 들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바르게 세우고, 자신의 몸을 도구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습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마스크를 끼고 활동하는 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서 연습 기간 내내 쉽지 않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어, 손튼 와일더 작품 '우리 읍내'라는, 뉴햄프셔 그로버즈 코너즈 마을을 배경으로 한 작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극을 선정했습니다.

"Carpe Diem"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새로움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8학년의 도전의 길은 첫 극 선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 왔던 고전적 연극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사실주의 극인 '우리 읍내'를 통해 8학년 학생들은 학교의 다섯 번째 마침 연극 공연을 위한 준비를 천천히 해나갔습니다. 특히 극의 흐름을 관객에게 소개하고, 실제 등장인물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무대감독 등장은 낯설었습니다. 극을 이해해 나가고, 자신의 역할을 선택하며, 연기를 해나가면서 극 안의 인물들을 공감하여 나와 연결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번 새로운 질문들이 찾아오고, 작업해 나가는 가능성을 펼쳐 보이기 위해 나를 드러내는 작업은 정말 어렵고 답답하기도, 힘들기도 한 순간이었습니다. 내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무대 위에 서는 나는 목소리가 작아지고, 움직임과 제스쳐는 힘을 잃고 흐느적거리며 고개를 떨구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스텝 회의에서 맡은 역할을 해내는 일도,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하나로 만들어 가는 작업도 기대 이상으로 매번 다르게 흘러 우리는 번번이 감정적인 싸움과 다툼으로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듯했던 순간들을 함께하면서 어느새 서로 의지하고, 서로에게 믿음을 보내며, 다시 용기 내어 자신감 있게! 해낼 수 있도록 응원해 나가며 끊임없이 연습해 나갔습니다.

연극 에포크를 하고, 매일 매일 오후 연습을 해나가며, 집중하는 시간은 우리를 서로 하나로 엮어나가는 마법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듯, 매 순간이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공연이 다가올수록 매일 늦어지는 연습 시간의 마무리에는 늘 힘들고 지친 무거운 우리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주는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달빛이었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가는 순간에도 우리의 가슴은 기쁘게 따뜻해집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되는 연습, 또 다른 피드백과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나의 자세와 마음을 가다듬으며 변화하는 동안 시간은 흐르고, 어느새 공연 날이 다가옵니다.

드디어 첫 공연! 공연 후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가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커다란 자신감, 두려움 가득했고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가슴의 뜨거움으로 우리는 서로를 보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낸 학생들은 앞으로의 삶의 두려운 순간들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이겨낼 용기와 힘이 커다란 선물처럼 우리의 가슴속에 하나하나 새겨지듯 살아 숨 쉬는 듯합니다.

7, 8 체육대회

8년 담임과정을 돌아보며

오이리트미 교사 장은심

8학년 과정을 마무리하는 마침식은 상급으로 가고자 준비된 학생들, 그 학생들과 긴 시간을 함께했던 교사들, 그리고 이 과정을 기쁨과 때론 눈물로 지켜보셨던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 지난 시간을 회상하고 상급으로 비상하는 학생들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각자에게는 지난 8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특별히 인상을 남긴 한 조각에 마음을 싣기도 합니다. 8년을 달려온 담임은 작은 인간이었던 아이들을 사춘기 깊숙한 곳까지 안내했고 이제 상급 동료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고는 큰 한숨을 내쉬며 돌아섭니다.

8년 전, 부모님의 손을 놓고 꽃문을 지나 담임 품에 안기는 입학식이 학교에서 이 아이들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주춤거리는 아이들도 있고, 신나게 앞을 향해 뛰어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자매 반 선배들이 주는 꽃을 받아 8년을 함께 할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향하는 발걸음에는 그 아이의 8년의 미래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시작에 축복을 보내고, 자신의 색깔로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1학년의 교실은 아름다운 동화가 흐르고 있지만 동시에 아직 공동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철부지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1학년 때 담임은 매일 등산을 한 만큼의 힘을 써야 하고, 매 순간 아이들의 안전에 촉각을 세

워야 합니다. 함께 원을 만들고 한 호흡으로 활동을 하기까지 한 학기의 시간이 족히 필요합니다. 그래도 1학년 겨울방학이 들어가기 전 아이들의 모습은 입학식 때와는 사뭇 다른 의젓한 모습입니다.

1년 학교생활을 지나온 2학년 아이들은 이제 기본적인 리듬이 몸에 실려 있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학과가 있고 그때 어떻게 배우는지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2학년 시기는 몸으로 많이 움직이고 리듬을 배우고 정확한 손과 발의 동작을 익혀야 합니다. 1, 2학년 아동들을 외부의 자극에서 보호하기 위해, 특히 오늘날과 같이 아동보호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세상에서 아이들을 지켜내야 하는 일이 교사들에게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정과 학교가 많은 노력을 해야만 아이들 삶 전체에 생길 수 있는 근본적 상처를 막을 수 있습니다.

3학년은 아이들 성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은 우리의 손길보다 더 큰 보호막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배우고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존재로서 스스로의 삶을 꾸리고자 합니다. 그 출발은 탄생에서 시작되었지만, 구체적으로는 3학년 즈음에 개별로서 자기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세상과 마주한 '나'는 그래서 아주 외롭고 힘듭니다. 지금까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담임으로서 인간의 위대함을 이 작은 인간들에게서 발견하는 경이로운 순간을 많이 만나고, 수업 안에서 아이들이 되돌려주는 인상과 영감이 담임을 성장시킵니다. 3학년 개구쟁이들이 어느 한순간 깊은 고요함에 빠져드는 모습을 경험하는 것은 담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4학년과 5학년 시기는 즐겁고 유쾌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기도 하고, 아이들은 몸으로 마음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자라기를 열망하는지, 얼마나 배우기를 좋아하는지 보여줍니다. 담임들의 내면은 또 다른 색깔로 바뀌어야 하고 일상은 여러 가지 기획으로 바빠집니다. 학급 여행을 시작하고, 개별 아동들의 방과 후 활동의 기호가 뚜렷해집니다. 아이들의 호흡은 안정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준비를 마쳤기에 자신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또래가 더 중요해지고 그래서 예상치 않게 홀로 지내게 되는 아동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악의가 없는 자연스런 성장의 과정이란 것을 부모님들께서 이해하기란 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5학년을 보내고 6학년을 맞이하는 겨울방학, 담임의 마음과 손은 아주 바쁩니다. 5학년 말에 아이들은 자신들이 다른 성장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신호를 벌써 보내왔습니다. 이제 세상이 왜 그런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에포크에 물리와 광물학, 천문학이 들어서며 세상의 이치를 찾아가는 첫 여행을 시작합니다. 6학년은 이후에 자신을 변혁하게 될 사춘기의 시기를 준비하며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이 아이들 안으로 한 단계 더 넓고 깊게 들어옵니다.

6학년에서 7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아이들의 몸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턱선이 발달하고 남아들은 어깨의 선이, 여아들은 골반의 형태가 변화됩니다. 땅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성별의 모습을 드러내며 내면의 발달도 깊어집니다. 자신을 돌보기 위해 외부의 벽을 잠시 차단하고 싶은 욕구가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이때 성인들은 겸허하게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양식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춘기로 들어선 아이들로부터 근본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내면의 질문이 한층 더 깊어진 8학년들은 학교에서 많은 과제를 받습니다. 8학년 자유 프로젝트, 연극 공연, 예술 공연 등 8학년 마침을 위한 1년간의 일정이 매우 바쁩니다. 이 과정을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배우고 그 배움이 이후 상급과정을 위한 힘이 됩니다.

8년 담임과정에서는 담임이 모든 아이들을 마치 부모님처럼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고 품어주었다면, 상급은 각자 배움의 방법을 터득하고 자신의 빛깔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위해서 8학년까지의 "함께 배움"은 학급 정신을 이루어내고 개별 배움의 근저가 됩니다.

학급마다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이지만 발도르프 교육은 각 발달 단계에 따른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각 발달 단계에 따른 에포크의 내용이 얼마나 적절하게 그 시기의 아이들의 성장을 안내하는지 8년 담임을 해 본 교사는 그 진가를 실제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8년 과정에서 획득된 배움의 방식을 기초로 하여 학생들은 4년의 상급과정을 지내는 동안 지평을 확대하며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렇듯 8년 담임과정과 상급은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 내적으로 연계되며, 발도르프 학교는 아동/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른 성장과정을 12년 전체 커리큘럼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처럼 초창기 상급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있지만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학교의 경험이 좀 더 쌓이게 되면 우리만의 특별한 활동과 탐구과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 여정에 부모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이 위로가 되고 그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마침식

8학년 마침식

8학년 마침

8학년 마 침 식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8학년 마 침 식

8학년 마침식

8학년 마 침 식

8학년 마침식

씨앗별(방과후)

방과후 교사 장준헌

단오날 “내 더위 사세요” - 부채 만들기에 열중인 아이들 -

학급의 오전 리듬과 씨앗별(방과후)의 오후 리듬은 아이들의 활동들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배움의 들숨 안에 안정적이고 편안함이 있다면, 자유로운 쉼과 즐거운 놀이의 날숨인 우리는 하루의 일과에서 아주 중요하게 흐르는 리듬입니다. 1, 2, 3학년 친구, 동생, 언니 형들과 너무 과하지도 혹은 덜 하지도 않게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절기 살이’

씨앗별에서 크게 중심이 되는 리듬 활동 중 하나인 ‘절기 살이’입니다. 3월 봄의 시작인 경칩, 춘분부터 겨울의 소한, 대한까지 24절기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계절을 느끼며 자연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배우고 있답니다. 봄에는 봄나물 캐고, 꽃 화전을 만들어 먹고, 여름엔 하지, 단오를 맞이해 앵두 화채와 장명루 팔찌, 부채 만들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을엔 가을걷이로 배추와 무를 수확하며 김장을 하고, 추운 겨울엔 감으로 홍시나 유자로 유자청을 만들어 한동안 맛있게 나눠 먹으며 지내기도 합니다.

텃밭 활동 : 걱정 중인 아이들 “저 벌레 무서워요”

열정을 쏟아붓는 ‘다 같이 놀이’

절기와 함께 즐거운 놀이가 빠질 수 없습니다. 땅의 기운이 넘치는 봄에는 땅과 관련된 ‘사방치기’, ‘한 발 뛰기’, ‘신발 뺏기’ 놀이로 즐겁고, 여름과 가을엔 싱그러운 자연 품에서 신나게 몸을 움직이는 ‘다방구’, ‘그물술래잡기’, ‘깡통 술래잡기’로 열을 내는가 하면 겨울에 들어서면 몸을 부대끼며 ‘돼지 씨름’, ‘까막잡기’로 아이들의 집중력과 열정으로 넘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직접 가꾸는 ‘텃밭 활동’

또 하나의 큰 리듬 활동인 텃밭 가꾸기가 있답니다. 농사 에포크

가 있는 3학년보다 1, 2학년 동생들이 텃밭 가꾸기에 더 열심히 합니다. 내가 직접 키우고 가꾸는 정성 어린 노동의 활동은 아이들의 육체와 정신이 기대하는 꾸준한 리듬을 보여주는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기 초반 텃밭 활동이 아직 낯선 아이들은 '손에 흙 묻는 것이 싫다'를 시작. 벌레가 무섭다고, 날이 덥거나 춥다고, 물을 주거나 작물을 솎아 주는 것이 귀찮다는 아이들과 함께 땅 다지기를 시작으로 거름주기, 고랑 만들기, 천연 비료 주기 등 작물들을 심고 가꾸며 결실이 맺힐 땐 모두 눈이 초롱초롱해지며,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머금으며 누구보다 더 큰 것을 캐겠다며 열심인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달, 한 학기, 한 해를 씨앗별 교실에서 지내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자연의 품에서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커가는 역동적인 모습들을 보며 건강한 쉼과 놀이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늘 배우면서 지낸답니다. 씨앗별 교실로 놀러 오세요~ ^^

"짜잔~ 제 염색 어떤가요? 잘 나왔쥬?"

"제가 더 큰 배추, 무우 뽑을래요"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10년의 역사 속 작은 울림, 1~8학년 영어 수업을 돌아보며

영어 교사 박랑주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스스로를 상으로 드러낸다.

언어의 혼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세상은 하나의 존재로서 스스로를 열어준다.

언어의 영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지혜의 힘을 부여한다.

언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언어는 자신의 힘을 줄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나의 마음과 정신을
언어의 영과 혼을 향하게 하고

언어를 향한 내 사람 속에서
나의 본냐를 온전하게 경험한다.

- 루돌프 슈타이너 -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가 세 살이 되던 2014년에 영어 교사로 와서 반짝이는 학생들을 만나 좌충우돌하는 많은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10살이 된 학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나무라 불리던 작은 학사에서 만난 2015년 당시의 6학년 친구들이 2021년 12학년이 되어 이제는 학교 밖 세상으로 용감하게 걸어 나가는 모습에 세월의 속도를 가늠해 봅니다. 공교육 중고등 학생들을 만나다 우리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에서 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가장 신선했던 일은 꿈이 다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도 동사무소 직원, 가방 디자이너, 글러브 디자이너, 발도르프 학교 선생님, 뮤지컬 배우 등 공교육에서

듣기 어려운 자세하고 다양한 꿈들을 우리 학교 친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할 때는 인사동에서 통역 봉사도 하고,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자극이 되었다는 한 학생은 실제로 매우 성실하게 그리고 열정을 다해 노력을 했고, 졸업 프로젝트로 외국어를 주제로 자신의 연구와 경험을 발표하고 책으로도 엮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학생을 지켜보며 교사로서 청출어람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자주 들었던 "이 게임하면 수행평가 점수에 들어가나요?", "이거 맞으면 몇 점인가요?" 이런 유의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교사는 우리 학생들이 교사의 움직임과 소리를 모방하고, 반복적인 움직임과 리듬 속에서 호흡하며, 배우는 것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즐기고, 그 즐거움 속에서 자유로움을 찾는 과정을 지향하려고 노력하는 수업 속에서, 의식하든 못하든 자신의 성장에 보약이 되어주는 배움을 가져가면 좋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학생들을 만납니다.

이갈이를 하고 학령기라는 시기에 들어와, 엄마 아빠 손을 놓고 학교라는 곳으로 들어온 저학년 친구들에게 외국어 선생님은 영어 사람이고 중국어 사람입니다. 외국어 선생님들이 한국어를 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매우 놀라운 사건인 셈이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영어 선생님도 친구들 앞에서는 한국어를 쓰지 않은 채 한동안은 잘 버팁니다. 그러나 교무실에서 혹은 다른 선생님이나 부모님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영어 선생님을 발견한 친구들이 생기면서 그 신화는 깨집니다. 그렇게 귀여운 판타지 속에서, 어린 시절 시를 낭송하고 노래를 하고 움직이며 챈트를 하고 게임을 하고, 영어 인형극도 듣고, 늘 반복적인 움직임을 하며 저학년 영어 수업을 보냈던 학생들도 이제는 어엿한 상급생이 되어있습니다.

움직임과 반복, 리듬 속에서 놀던 저학년의 영어 수업을 지나, 호흡이 점점 안정되고, 장기 발달도 완성이 되어가고 드디어 폐도 완성이 되어 읽기, 쓰기, 셈하기를 본격적으로 배우는 루비콘의 시기가 되면, 이제 어린이들은 소리로만 만나던 영어가 알파벳이라는 문자로 표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백하자면, 중등교사로 살다 이곳에 왔기에 알파벳을 모르는 존재에게 영어를 가르쳐본 경험은 이곳이 처음이고 가장 당황스러운 점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긴 호흡으로 이야기와 움직임 속에서 알파벳을 가르치는 발도르프 접근법은 교사로서 흥미로우면서 도전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이야기를 듣고, 특정한 소리를 내고, 몸으로도 표현하고, 그룹으로도 표현하고, 허공에도 써보고, 걸어도 보고, 쿠키도 구워보고 그림도 그려보다 곧은 선과 굽은 선이 잘 어울려서 이루어지는 알파벳들을 하나씩 써보게 됩니다. 그렇게 만난 소중한 문자들을 조합해서 내 이름, 친구 이름, 학교 이름을 영어라는 말로 써보고, 바느질도 해보고, 다른 예술작품으로도 표현해 봅니다. 새로운 학사로 이사를 왔던 해에 알파벳 필기체로 학교 이름을 한 땀 한 땀 천에 바느질 한 학생들의 작품으로 학교 로비 한 곳을 장식했던 일들은 기초적인 배움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성으로 표현되는 소중한 장면을

볼 수 있었던 아름다운 기억들입니다.

중학년이 된 학생들은 저학년 때 늘 반복하던 “Morning has come” 노래를, “God made the sun” 시를, 그리고 “Sunday, monday~” 챈트로 만나던 단어들을 공책에 써보며, 자주 듣던 소리들을 문자로 다시 만나게 되며, My First Reader가 되는 공책에 나의 첫 번째 영어책을 만들어 냅니다. 시간이 지나 읽을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이 늘어나며 드디어 인쇄된 종이책으로 한국어 책 읽듯이 영어책 읽기를 시도해 봅니다. 자주 반복해서 읽어 암송해보기도 하고, 짧은 롤 플레이나 연극으로 영어로 말하는 경험들을 조금씩 늘려보게 됩니다. ‘Stone soup’ 이야기를 읽고 연극해 보며, 실제 연극 상황에서 ‘Stone soup’을 끓여서 다음 수업시간 내내 군침 도는 냄새를 교실에 풍기다 점심시간 식사 시 국으로 먹었던 일들도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영어를 통해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싶은 시기가 되는 중학년, 고학년 친구들은 외국의 발도르프 학교 친구들에게 편지도 써봅니다. 답장이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지만, 영어로 다른 문화 속에 사는 내 또래의 친구들에게 말을 건네는 일은 언제나 설레는 일입니다. 2019년 발도르프 교육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 발도르프 학교에서 서로 엽서를 주고받았고, 외국의 발도르프 학교 친구들에게서 온 엽서들을 모아, 거대한 캔버스에 아름답게 세계지도를 배치하여 붙이고 배경도 칠하고 학교 마크와 글씨도 써서 학교 로비에 걸개로 장식했던 날, 세계 속의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그리고 그곳의 멤버인 자신을 세계 시민으로도 어렴풋이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곳의 영어 교사로서 저는 학생들이 발도르프 교육 현장인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의 영어 수업을 통해서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언어의 혼을 느끼고, 언어의 영을 경험하는 그 길 여기저기에서, 영어와 함께 건강한 경험들을 많이 하도록 돕는 영어 동행자가 되어주려 합니다. 학생들의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현재의 순간들이 아름다운 다리가 되도록 도우려 합니다. 현장에서, 아름다운 학생들과 함께, 가슴에서 향기가 나는 동행자가 되고 싶은 한 영어 교사의 잠시동안의 회상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학생들과 영어를 통해 만난 작은 기쁨들과 축복들을 나누어 보내 드립니다.

발도르프 중국어 수업(담임과정)

중국어 교사 김가령

"중국어 발음은 왜 이렇게 웃겨요?", "중국어에는 왜 이렇게 똥이 많아요?" 중국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은 중국어 소리가 마냥 신기합니다. 중국어 선생님을 보고도 "니하오(你好)"보다 "헬로우(Hello)"를 해야만 할 거 같습니다. 걱정은 잠시, 첫 수업시간부터 오로지 입말 수업으로만 진행되니 아이들은 이내 중국어 소리에 친숙해지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동작과 행동으로 그 뜻을 알아차리고 반복되는 익숙함에서 온 몸으로 이해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의식적으로 정제된 언어와 동작을 사용하여야 하고 꾸준한 리듬을 반복하여야 합니다.

"봄날의 화원에서 장미꽃과 같은 아침을 맞이합니다. 햇빛 찬란하고 만물이 깨어납니다.(在这春天的花园，玫瑰般的早晨，阳光呼唤，阳光呼唤，万物苏醒了。)"

아이들은 손에 손을 맞잡고 봄을 맞이하는 계절 노래를 부르며 원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는 아이에게 한 줌의 씨앗을 주고 화원에 심으라고 했어요. 아이는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보살피며 자라는 걸 지켜보았어요(从前有一个小男孩儿，妈妈给了他一把种子，让他种在花园里。小男孩儿挖了土，把种子种下。照顾它，看它长大。)"

아이들은 유의미한 동작과 함께 교사의 말을 따라하면서 서로서로 소곤소곤댑니다. "씨앗을 심나봐," "선생님, 감자 심어요?" 하며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질문없이 온 몸으로 소리를 모방하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언어는 이렇게 아이들의 감각 속에 스며듭니다. 특히 저학년의 수업에서는 단어의 뜻이나 전체 문장의 뜻을 꼭 알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발도르프 교육에서 호흡의 리듬을 익히고 몸으로 배운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언어 감각은 행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몸을 움직이고 활동함으로써 머리에서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호흡과 리듬을 다양한 자극으로 격동적인 리듬과 고요한 리듬이 교차될 수 있게 의식적으로 구성하고 준비합니다. 담임과정 저학년의 중국어 수업에 쓰기는 없고 입말로만 진행이 됩니다. 언어의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입말과 유의미한 동작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주변의 사물들, 자연, 동식물, 낮과 밤, 신체 부위, 색깔, 시간 말하기, 일상동작 등을 묘사와 동작, 상황극으로 익혀나갑니다. 수업의 주요 활동은 따라 말하기, 노래 안에서 아름답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 게임과 활동 그리고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상상합니다. 문자 수업이 처음 들어가는 3학년도 문자 수업은 거의 초기단계인 한자의 획순을 배우기 때문에 입말로 배우는 과정이 중점적입니다. 모든 수업의 방식은 모방의 힘으로 온 사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배우고 상(像)을 중심으로 떠올린 후 마지막에 개념이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글자도 처음엔 그림처럼 이미지로 배우고 점차 확대되어 배우게 됩니다.

담임과정의 중간 단계인 4학년부터 서서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언어수업에서는 집중과 이완을 위해 잰말놀이와 챈트를 집중 연습합니다. 이 역시 말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가 가지는 음운적인 특징을 감각적으로 익히는 연습입니다. 발음연습과 함께 일상회화 역시 상황과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연스럽게 익혀나가고 가슴으로 배우는 노래와 시들로 풍성한 어휘 기초를 만들어갑니다. 4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자 쓰기를 연습하고 이음절 단어를 만들어 어휘를 쌓아가고 조어력(造語力)을 익히게 됩니다. 상형문자의 이미지를 먼저 보고 그 뜻을 유추해보며 형상적 사고를 이끌어내는 쓰기 연습은 4학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의지적인 활동 작업입니다. 자아의식이 생기고 사고력이 개발되는 이 시기부터 진정한 학습의 방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 방법으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규칙과 함께 연습 기회를 제공하고 늘 규칙적으로 되풀이하는 언어 말뭉치는 이미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자신의 말이 되고 언어감각을 형성하게 합니다.

5학년부터는 지금까지 배웠던 시와 노래를 공책에 따라쓰기 연습을 하고 쓰기를 통해 읽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젠 간단한 단어의 받아쓰기도 해 보는데 아이들은 긴장도 되지만 즐거운 도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개별적인 암송 시간에는 반 전체 친구들 앞에서 혼자 외워야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경험하게 됩니다. 합창처럼 따라 외웠던 잰말놀이, 시와 노래, 챈트는 아름다움과 완전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배움에 대한 즐거움과 도전 의식은 무겁

게 땅으로 내려오는 사지에 실려 손끝의 힘으로 자신을 느낍니다.

6학년이 되면 중국어 수업은 새로운 학습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동안의 입말수업 내용과 형식은 계속 유지 및 확장이 되고 중국어의 한자를 읽어내는 발음기호를 배우게 되며 정확한 발음으로 읽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단계적으로 문법의 구조를 익히게 되고 문장 패턴 연습을 통해 다양한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습득하게 됩니다. 5학년까지는 한자를 보고 쓰고 익히는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하게 하고 영어 알파벳을 충분히 인지한 뒤에 발음기호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따라 읽고 말했던 시와 노래를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내는 연습을 하면서 점점 긴 호흡의 문장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미 배웠던 한자들은 발음기호의 도움없이도 잘 읽어내지만 점점 증가되는 어휘와 문장들은 발음기호를 보고 읽고 익힐 수 있고 다양한 표현을 배우게 됩니다. 문법 역시 입말 수업처럼 생생한 언어 환경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너무 이르거나 추상적인 방식은 아이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해력과 분명한 개념이 형성된 이후에 학년별 발달 단계에 따라 진행됩니다.

7, 8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독해, 회화, 문법 등 언어 수업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요소를 풍요롭게 접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집니다. 속담, 관용구, 글자의 어원 등 유머와 재미를 더해줄 수 있는 언어 요소를 적절히 추가하기도 합니다. 인쇄된 텍스트와 문학 작품을 통해 풍부한 어휘, 다양한 관용적 표현들, 묘사 등 더욱 정교한 언어 수업 형태를 갖추고 아이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짧은 연극의 대본을 만들어 극으로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이야기해보고 다시 질문에 답해보는 방식은 7,8학년에 있어 읽기와 함께 자신의 말로 표현해보는 중요한 교육 과정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역사, 지리, 문화학습 등을 통해 그 나라의 풍속습관을 이해하며 타문화를 존중하고 또 다른 사고의 영역을 열어줍니다. 모국어와 다른 외국어 수업에서는 단순히 말을 할 줄 안다는 실용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언어를 통해 새로운 사유체계,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접근과 세계관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문화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언어는 사람들간의 의사소통 수단이며 사람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말하기를 통해 사고는 모방으로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활동이며 새롭게 배우는 언어로 인해 또 다른 방식의 사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학년 학생에게 중국어는 낯선 외국어이지만 자신과 일체화된 세계로 수용이 가능하다면 빠르게는 4학년 이후부터는 외국어를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기만 했던 중국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렵고 고비가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지를 키우는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외국어 수업을 통해 여러 가지 색상을 담을 수 있는 자신만의 팔레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고유의 색으로 아름답고 창조적인 그림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자아의 날개를 펼치는 12학년의 졸업 오이리트미 공연까지!

오이리트미 교사 장영심

생명력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합니다. 몸을 일으키고 마음에 생기를 주어 나를 느끼고, 세상을 사고하고, 나를 움직여 성장하게 합니다. 잠들었던 모든 기운들이 오이리트미에서 깨어납니다. 나는 고귀한 생명체였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느낌이 리듬을 타며 생동감을 얻습니다. 공간을 크게도 작게도 또한 빠르게도 느리게도 만드는 생명력의 주체가 됩니다. 보이지 않았던 나의 힘을 보고, 만지고, 느끼며 나의 성장을 상기합니다. 매번 죽음을 이겨낸 몸과 마음 곳곳의 생명력이 피고, 지고, 또 피어나리라 직감합니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오이리트미를 통하여 자신의 자아를 성장시킵니다.

1 학년 아침 해가 둥실 금빛 날개를 펴고 세상을 환히 비춥니다. 아주 작은 난쟁이들은 오늘도 거인을 만나러 숲으로 갑니다. 해님을 맞이하고 꽃들과 나무들과 동물들에게 인사하고 손과 발을 깨워 씩씩하게 동화의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생명의 힘이 꿈틀댑니다.

2 학년 오른발은 힘차고 강하게 전진하고, 왼발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마음과 세상을 만집니다. 아직 나는 내가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몰라요. 그걸 구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자신의 몸을 움직이

며 나를 느끼고 친구를 느낍니다. 나는 힘이 세지고 기운이 넘쳐 친구들과 더 신나게 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다 알고 싶습니다. 나와 친구들은 이제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3 학년 햇살이 비췬다면 나는 이제 혼자서도 길을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빛이 들어와 나의 중심을 환하고 강하게 합니다. 별 여행도 구부러진 8자 모양의 길도 마음의 빛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내가 사는 세상에 나의 햇살을 모아둘 집을 지었습니다. 언제든 세상으로 빛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4 학년 친구들을 등 뒤로 하고 우리가 왔던 우주를 향해 몸을 돌립니다. 이제 보지 않아도 친구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인, 우리는 거대해! 마치 산처럼, 마치 숲처럼. 단지 몇 발치로, 온 산을 박차고! 나의 리듬이 언어에 실립니다. 언어의 리듬이 나와 어우러져 나는 강해짐을 느낍니다.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5 학년 왼발로 나를 굳건히 세우고, 오른발로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네. 심장에서 나오는 따뜻함이 왼손으로 흘러 사랑을 틔우고, 내 오른손이 하는 행동에 희망을 품으며, 이마로 흘러오는 나의 생각에 신뢰를 갖네. 이 다섯은 나를 존재케 하고, 이 다섯은 나를 살아있게 하네. 온 우주의 생명의 기운이 내 몸으로 쏟아내려 나를 정화시키고 힘을 줍니다. 나를 신뢰하며 앞으로, 뒤로, 그리고 대각선으로도 달릴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커진 친구들과 리듬을 맞춰 할렐루야의 길을 달리며 나의 성장을 돕는 축복의 손길을 감지합니다.

6 학년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은 예전의 문이 닫혀서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세 개의 원이 동시에 각자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동시에 네 개의 사각형이 문을 열고 다음의 문으로 이동합니다.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진리를 지키며, 고귀함을 공경하고, 선함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우리의 움직임으로 확인합니다. 삶 속에 목표가, 행동 속에 정의가, 마음속에 평화가, 생각에 빛이 담긴 것은 온 우주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준 선물임을 기하학의 형태로 느끼고 다짐합니다.

7 학년 나를 표현하는 것은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의 나의 씨앗이 움틉니다. 음악과 언어에 담긴 정신과 사랑의 힘이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열어 두고 싶습니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나의 마음을 간사한 여인의 뒤틀린 몸짓으로, 기상이 넘치는 기사의 몸짓으로, 때론 근엄하고 웅장한 왕의 자태를 빌어 혼란한 마음을 표현해봅니다. 7학년은 나의 사춘기의 전야입니다.

8 학년 설렘과 긴장감이 왠지 들뜬 채 혼재합니다. 나를 나로서 보일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싶다! 성장한 자신의 모습이 무대 위에 펼쳐지는 상상을 하며 열정이 타오릅니다. 곧 그 상상의 문을 열어젖히고 싱그러운 첫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척추를 비집고 형태를 드러내는 날개처럼 형형 색깔로 날아올라 온 무대를 빛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날갯짓에 어렸던 생동감을 음미하며 간직합니다.

상급

산봉우리를 넘듯 인생의 문턱을 한 번 넘고 평지에 몸을 누입니다. 나른한 미풍에 잠이 옵니다.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하는 어린아이처럼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나의 의식을 깨워 일어나야 합니다. 인간의 의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얼마나 광대한지! 창조 시를 읊었던 3학년을 기억하는가? 모든 형상에 빛이 드리우자 그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언어의 문법과 정형성은 그 빛의 함축입니다. 나의 무거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빛을 내어 나를 드러냅니다. 빛으로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나의 에테르체(생명력)는 음악과 시를 조형하며 점점 커지고 유연해집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비밀스러운 정신성을 나의 감성을 통해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제 나의 생명력은 아스트랄(감성)체를 위해 자리를 내줍니다.

감성은 사고와 의지와 충분히 상호 역동하는가? 그간의 모든 생활방식과 배움의 태도가 거울처럼 길 위에 풀어 헤쳐집니다. 나의 자아가 묻습니다. 나는 홀로 굳건히 서 있는가? 나의 타오르는 열망을 간직하는가? 숙고하는가? 그러할 때 감성과 사고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결정할 수 있는가? 결정에 따른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가? 늘 넘어졌던 익숙한 문턱에 다시 걸려 넘어지지 않을 용기와 의지를 잘 배웠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궁극적인 나의 실천이 현실에서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유연하고 능동적인가? 12궁이 전하는 영혼의 힘이 나의 현실을 실제로 시험합니다.

오이리트미는 '되어가는 나의 자아'입니다. 그 날개를 활짝 펼치며 세상으로 향한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의 첫 회 졸업생들을 기억합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으나 언제나 존재하기에 느낄 수 있는 우주의 생명력으로서, 학교의 정신으로서 항상 역동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학교에 새로운 씨앗이 뿌리내렸습니다. 그 씨앗 위에 흙을 덮고 꽁꽁 발로 다지며 새로운 정원을 가꾸는 후배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있어 너무 좋습니다.

2021년 5학년 체육수업

고대올림피아드와 서커스 이야기

체육 교사 이형진

고대 올림피아드는 진, 선, 미의 이상이 활동 속에 녹아 있고, 도덕교육이 기초를 형성하는 원형적인 내면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뛰어난 신체 능력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목표가 되어 자신에게 도전해보는 것이다. 아름다움, 우아함, 강함의 모토 안에서 자신의 움직임의 질을 판단하고, 증명, 확인하게 되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다양한 움직임을 경험하고 공간적으로 자신의 중심을 찾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다룰 기회를 서커스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

5학년이 되어 고대올림피아드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왜? 하는지 항상 아이들이 교사에게 질문을 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처음 보는 창과 원반을 보면서 "이것은 무엇이에요?", "나, 이거 잘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창과 원반에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한번 던져 볼래?" 물어보면 공을 좀 던진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나와서 창과 원반을 던져 본다. 이내 "어려워요!" 그러면서 머리를 긁적이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후 시범을 보여주면 "우와! 멋있어요." 환호를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던질 수 있겠죠?" 하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고대 올림피아드의 수업은 시작이 된다.

서커스 수업이 시작되면 다양한 많은 기구들을 아이들 앞에 내어 놓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선생님 이거 다 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한다. "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시범을 하나씩 보여주면 아이들은 각자 관심이 있는 기구부터 접근하고 배움을 시작한다. 이처럼 아이들은 순수하게 접근하여 수업 시간에 고대 올림피아드와 서커스를 배우고 있다.

2021년 고대올림피아드는 특별한 올림피아드였다. 연합으로 고대올림피아드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이었다. 처음 1회부터 10회까지 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21년도 고대 올림피아드는 코로나로 인하여 장소를 대여할 수가 없어서 학교에서 약 3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경북 영주의 한 마을 속리산마을 캠핑장에서 하였다. 올림피아드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다급하게 5학년 선생님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 수 있을까요?", "넵! 우리 아이들은 그리스 전사들이니 이 정도 비는 이겨 낼 수 있어요." 하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면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 했다. '비야! 더 이상은 내리지 마라!' 거짓말같이 더 이상 빗줄기는 굵어지지 않고 소강상태로 들어갔다. 9시가 되자 6시에 학교에서 출발한 우리 학교 아이들이 도착을 하였다. 먼 곳에서 보니 얼마나 반가운지 선생님과 아이들, 같이 온 부모님들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고대 올림피아드를 시작하였다. 이번 연도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학교가 다 모여서 하지 못하고 오전 팀과 오후 팀으로 나누어서 2번 올림피아드를 해야 했다. 우리 학교는 오전 팀에 속하여 올림피아드를 진행하였다. 모든 체육 선생님이 그렇듯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잘하는지 살짝 긴장이 된다.

단체사진

개막식

전차경기

아르고스의 전차들

드디어 개막식이 끝나고 첫 번째 게임인 마라톤을 시작했다. 그런데 선두에 우리 학교 애들이 보이지 않는다. '헉! 다 어디 갔지?'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두 번째 그룹부터 우리 학교 애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다 완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휴! 그래도 잘하는구나!' 나의 긴장감이 조금 줄어들었다. 다음 경기는 25M 왕복달리기다. '너', '나'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해 달리는 모습에서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을 볼 수 있었다. 다음 경기는 창과, 원반 던지기다. 학교에서 고대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고 연습할 때 우리 학교 아이들이 대부분 잘 던지는 편이라 내심 기대를 하고 경기를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학교에서보다 더 잘 던지고 더 멀리 던지는 것을 보면서 매우 흐뭇했다. 사실 이렇게 다른 학교 아이들과 비교하는 나의 마음이 살짝 부끄럽지만... 우리 학교 아이들이 잘하는 것이 바로 나의 평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비교를 하는 것 같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야겠다.

아주 긴 여정의 고대올림픽을 마치고 뿌듯하게 돌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좋았다.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고대 올림피아드가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뛰어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았다. 또 한층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사는 힘을 얻는다. 아이들의 성장은 늘 흐뭇하다.

고대 올림피아드가 끝나고 잠깐의 공놀이 수업을 하고 나면 서커스 수업이 진행된다. 아이들은 1학기 때부터 연습을 시작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외발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걱정이 됐다. 그러나 아이들의 능력을 믿는다.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마무리 발표를 하기 위해서 각자 서커스 기구를 정하기로 하였다. 아이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각 기구를 불렀다. "접시돌리기 할 사람" 그러자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들었다. 무려 8명이 손을 든 것이다. 다음은 데블스틱, 다음은 외발자전거를 타면서 저글링 팀, 마지막으로 디아블로이다. 디아블로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가장 연습을 많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발표할 때가 되면 발표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종목이다. 이 종목의 지원자는 4명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아이들이 한 종목씩 발표하기 위해서 종목 선정이 끝났다. 이제 열기를 하기 위해서 열기 할 아이들을 뽑을 순서가 되었다. "혹시 하고 싶은 친구 있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친한 두 친구에게 "혹시 해보지 않을래?" 물었다. 아이들은 흔쾌히 "넵 제가 할게요." 대답을 했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옆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같이 할래?" 물었다. 그러자 "넵! 같이 할게요."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열기는 키 큰 신발을 신은 친구, 페달로를 타고 달리는 친구, 곰돌이의 원통을 굴리는 친구로 결정이 되었다. 이제 그룹으로 연습을 시작한다.

아이들은 수업 시간 이외에도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많은 연습을 하였다. 순조롭게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학교에 코로나가 터졌다. 그래서 2주 동안 휴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서커스는 연습을 중단하게 되면 어려워지는 것인데 나는 걱정이 되었다. 급히 5학년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했다. "선생님 이번 학기에 발표해도 되겠어요?, 6학년 1학기에 발표하면 안 될까요?", 그러자 5학년 담임선생님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셨다. "아니요, 이번 학기에 발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고 아이들을 믿으면서 발표 준비를 계속해서 이어 갔다. 하루하루 연습을 하면서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

는 '잠재력이 대단하구나!' 한 번 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윽고 발표 날이 되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 예술발표를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런데 왜? 발표 날이 되었는데 내가 더 긴장이 되는 것일까? 어쨌든 긴장감을 가지고 작은 예술 발표회의 서커스 발표가 시작되었다.

음악과 함께 열기 친구들이 등장하여 대사를 한다. 가장 먼저 원통 굴리는 친구가 이야기를 한다. "키 큰 신발 신은 친구야! 키가 많이 컸네!" 대답을 한다. "당연하지!", 그러자 페달로 친구가 이야기한다. "그럼 저기 멀리까지 보이겠네?", 키 큰 신발 신은 친구가 다시 대답한다. "물론이지!", 다시 페달로, 원통 굴리는 친구가 동시에 질문을 한다. "그럼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키 큰 신발 신은 친구가 이야기를 한다. "저글링, 디아블로, 접시돌리기, 데블스틱을 하고 있어" 그리고 3명이서 동시에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5학년 서커스 무대를 함께 볼까?, 그럼 이제 서커스 시작" 하면서 열기를 마치고 첫 번째 순서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접시를 돌리면서 등장을 한다. 자전거에서 내리고 한 학생의 힘찬 기합과 공연이 시작되었다. 다음은 음악 선생님의 센스 있는 선곡에 맞춰서 데블스틱을 하였고, 자전거를 타고 저글링, 마지막으로 디아블로 공연이 끝났다. 이제 모든 아이들이 함께하는 외발자전거 공연이 남아있다. 공간이 좁아서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누었다. 순조롭게 아이들이 공연을 잘하였다. 마지막 첫 번째 그룹이 출발하여 안에 작은 원을 만들고 두 번째 그룹이 출발하여 바깥에 큰 원을 만들었다. 음악 선생님의 연주가 끝나고 아이들이 다 같이 "5학년 서커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를 하는 순간 너무나 울컥하였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또 큰 산을 하나 넘었구나!' 안도 아닌 안도의 순간을 경험하였다.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매일 성장한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다. 너무나 감동적인 서커스 발표를 했다.

이제 5학년은 고대 올림피아드와 서커스를 통하여 실패의 아픔도 겪었고, 자신을 뛰어넘는 경험도 하였다. 이제는 도전과 성취를 통해서 계속 다가오는 도전 상황에 아이들은 멈춤 없이 계속,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1년 한해도 5학년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께 힘을 주고 감동을 주어서 감사했습니다. 항상 꽃길만 펼쳐지지는 5학년이 되길 바라며 자신을 늘 이기는 아이들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5학년 어린이 여러분 고대 올림피아드, 서커스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021년
5학년 아이들과 목공 시간을 보내고 난 후...

목공 교사 송경수

5학년이 된 아이들은 자연에서 접하던 나무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져보며 놀잇감으로 사용했던 나무들에 나의 의지의 힘을 더해 이제는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첫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자연의 나뭇가지 혹은 나무둥치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의 변형을 주던 것에서 발전해 칼과 망치 등의 도구들을 사용해 작업하게 되는 아이들을 위해 교사는 많은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나무가 갖고 있는 놀라운 생명력과 나무의 성질, 결, 특성들. 또한 앞으로 작업하면서 사용하게 될 조각도와 망치, 핸드드릴 등의 사용법과 주의점을 말해 줍니다. 자주 보고 흔히 보던 나무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5학년 아이들은 나무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후 진행하는 작업을 통해 나무를 다루는 즐거움과 작업으로 인한 성취감, 나무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이제 직접 도구를 사용해 나무를 깎아봅니다. 가끔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다치기도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 규칙들을 익혀나가는 동안 안정적인 학습이 되고 또 하나의 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됩니다.

5학년이 목공 시간에 만드는 것들로는 풍차, 풍경, 팽이, 나무피리, 자동차 등이 있으며 이는 아이들이 나뭇가지를 사용해 나무의 결을 가장 쉽게 파악하며 도구들을 다양하게 사용해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을 움직이기 위해 손의 힘과 바람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기계식 놀잇감처럼 내부의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몸으로 바로 느끼며 작품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는 아이들이 작품의 움직임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이를 기반으로 또 다른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현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바탕으로 지난 1년 아이들이 작업을 하는 동안 나뭇결의 방향 때문에 혹은 구조적인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기도 했고,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해하기도 했으며 간혹 다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며 감각을 기르고 스스로 혹은 서로 물어가며 교사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면서 하나하나 작품을 완성해 나가며 함께 웃고 행복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아이들 개개인이 높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5학년 아이들이 목공을 처음 접해본 만큼 아직은 서툴고 투박하지만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안은 채 조금은 더 단단해지고 성장해 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아울러 이 아이들이 앞으로 접하게 될 나무의 또 다른 모습과 새로운 작품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 또한 커다란 즐거움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7학년 미술수업

흑백 그림과 원근법

미술 교사 이소윤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학생들은 6학년이 되면 미술 선생님과 미술실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많은 학생들은 기대감과 설레임을 갖고 미술실로 향할 것이고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의 감성이 미술 과목 수업을 통해 한 층 더 예술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발도르프 학교에서 미술 수업은 사실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표현활동입니다. 담임 선생님과 습식수채화로 그렸었던 동화 이야기, 색을 자유롭게 만나고 경험하기, 혼합색, 단색, 2색, 보색, 색 화음, 우화, 전설, 색깔 이야기, 따뜻한 색, 차가운 색, 색 공간 연습 등 참으로 다양한 색 연습은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처럼 아이들의 감각 인상에 자연스럽게 작용합니다. 습식수채화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물감은 물과 만나야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희석된 물감으로 젖은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얘기합니다. 물감이 딱 여기까지만 있어야 하는데 번졌어요! 참으로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 회화기법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슈타이너는 모티브는 강하게 드러내지 않으며 동물, 식물의 본성과 특징, 주변의 환경, 자연의 힘을 느끼고 그려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기술적인 연마도 해야 하고 표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모든 수업이 그렇듯이 미술 수업도 교사가 먼저 연습을 많이 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7학년이 되니 아이들의 신체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목소리도 바뀝니다. 말은 많아지고 움직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느낌도 받습니다. 마냥 어린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떠들다가 갑자기 내면으로 쏙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는데... 하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기가 찾아옵니다. 아이들은 이제 점점 더 자신과 주변을 분리해나가면서 세상을 의식적으로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현상을 관찰하고 싶고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맘때쯤 되면 아이들에게 '상상해봐!'라는 말은 참 가혹하게 들립니다. 상상해서 그려보자는 말을 실제로 제일 어려워합니다. 어린 시절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상하였던 힘들은 잠시 쉼을 갖고 새로운 성장의 흐름에 들어섭니다. 7학년 미술 시간은 6학년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목탄 또는 흑연, 연필 등으로 음영을 경험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사물에 비치는 빛과 그림자를 그리는 연습을 해나갑니다. 나에게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가까이에 있는 것은 크게 보이는 색 원근법도 배워나갑니다. 산 정상에 올라 저 멀리에 있는 다른 산을 바라볼 때 뿌옇게 나타나는 색의 현상을 원근법적으로 그려봅니다. 7학년이 되면 교차점, 소실점,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등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파악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높은 건물을 올

려다볼 때와 아래로 내려다볼 때 다르게 보이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나갑니다. 그리고 물에 비친 건물을 표현하기, 산 정상, 중턱 그리고 아래에 위치한 마을을 투시원근법적으로 그려보기도 합니다. 7학년 미술 시간은 자연을 관찰하고 빛과 그림자의 현상을 관찰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나가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그려보는 과제를 원근법적인 원리로 진행해 나갑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감상하는 연습도 합니다.

발도르프 학교의 미술 수업은 과정을 경험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데 7학년의 미술 수업은 과정에 대한 경험을 진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파악하고 현상들을 관찰해야 하므로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학생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7학년은 또한 재료의 특성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것으로 표현해내는 배움의 깊이를 경험하고 스스로 확인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내는 배움의 본질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케스트라

음악 교사 김대현

우리 학교의 오케스트라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가는 길목에 시작됩니다. 내면에 가득했던 신뢰의 시기에서 세상에 대한 저항심이 생기는 것을 느끼고 비판을 시작하며 스스로 대안을 찾는 이 시기에 학생들은 오케스트라를 통해 무엇을 배워갈까요?

음악은 영혼의 비밀 장소로 파고든다.

사춘기. 이 시기 학생들은 급속도로 성장하며 몸이 무거워지고 유연한 움직임이 어려워지며 자신의 몸을 낯설게 느낍니다. 목소리 또한 변화하여 전에는 나지 않던 낮은 소리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노래에 소극적이고 표현하기를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춘기의 세상에 관한 여러 수수께끼와 그 표현들이 젊은 영혼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 힘들은 다른 것

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소리에 어색한 학생들은 음악적 보호막이 필요한 시기이며, 내면으로 움츠러든 욕구를 악기를 통한 표현으로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자신만의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소용돌이치는 감정들은 멋진 곡들을 연주하며 떨쳐내 버리고, 슬픈 곡들을 연주하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작지만 큰 세계.

학생들은 오케스트라 안에서 함께하는 호흡을 맞춰 나가며 그들 주변의 세상에, 그 세상의 법칙에 그리고 그 과정의 원인과 결과를 음악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확고하게 인식하고 작은 세계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며 음악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물론 아이들은 사춘기 시기에 시작되는 반감적인 언어들로 일단 내뱉고 봅니다. “연습 그만하면 안 돼요?” “집에 일찍 가고 싶어요.” “혼자 할 때는 잘 됐는데 같이 하니까 안돼요.”라는 말들로 시작을 합니다. 늘 시끄러운 수다와 수십 가지의 악기들 소리로 시작되는 수업은 곧 지휘자의 사인과 함께 진지한 긴장감과 하나가 됩니다. 이 순간만큼은 작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음악은 시작된다.

노린재의 발걸음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한 가운데 지휘봉을 젓기 시작하면 그에 맞추어 아이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조금 느려지다가, 서서히 커지고, 힘찬 걸음으로 나아가다가, 멈추고, 달리고, 꽃 피어나듯 여리게, 폭발하듯이... 지휘봉은 마술봉이 되어 소리를 변신시킵니다. 무거운 몸으로 연습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멋진 연주를 해내기까지 시련의 과정들이 있지만,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음악이 주는 황홀한 경험은 학생들이 자라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음악의 언어는 무한하다.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날. 학생들은 평소와 다르게 말끔한 옷차림을 하고 잔뜩 긴장된 모습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서면 두려움도 잠시, 학생들은 음악에 젖어들어 스스로가 음악이 됩니다. 음악을 통해 따스한 햇빛이 되고, 고독한 방랑자가 됩니다. 멋진 영웅이 되는 학생도 있고, 넓은 바다가 된 학생도 있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것은 다르지만 음악을 통해 같이 호흡하며 우리가 함께 이 멋진 연주를 해냈다는 것에 스스로 놀라워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모두 함께 하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음악의 언어는 수많은 악기들의 진동으로 온몸에 무한한 가능성을 새겨 줍니다.

1학년~12학년 수공예

수업과 공간

담임과정 수공예 교사 백금주
상급 수공예 교사 김윤희

공간...

맑은 눈동자로 이 공간이 어디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두리번거리던 작은 어린이들이 그 눈동자를 반짝이며 힘차게 걸어 들어온다. 그리곤 시작을 알리는 시를 읊기 위해 바르게 몸을 세우고 반짝이는 눈은 교사에게 향한다. 우리는 이 공간에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채우고 공간을 데우는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한다. 손을 움직이고 친구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어 너를 알고 나를 알려 가슴을 데워준다. 손을 계속 움직인다. 작업을 이해해가며 사고를 깨우고 사고를 키워가며 아름다움을 채워낸다.

1학년: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처음 두 손으로 함께 작업해가는 것을 배워나간다. 나의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내보내기를, 두 손이 주고받기를 반복하며 두 손이 같은 힘으로 움직여 대바늘뜨기를 익히고 작업해나간다.

2학년: 두 손의 조화로운 작업과정을 완성해낸 나는 익숙한 손의 움직임에 힘을 더해주고자 나에게 우월한 손에 코바늘을 잡고 다른 손의 도움을 받아 코바늘뜨기 작업을 진행해나간다. 한 손은 받쳐주고 익숙한 나의 다른 손은 힘 있게 작업을 완성해낸다.

3학년: 두 손에서 한 손으로 다시 두 손으로 그리고 새로운 뜨개 방법을 새로운 줄 바늘을 사용하여 모자를 완성한다. 하늘 문을 닫는 나에게 보호와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며 땅으로 잘 내려오도록 돕는 작업을 한다.

4학년: 루비콘을 지났거나 진행 중인 내가 땅에 발을 딛고 바로 서도록 도와가는 작업을 한다. 나를 세우고, 가슴으로 나를 만나도록 세우는 십자수와 X 십자수 작업을 진행한다.

5학년: 가슴에서 두 발에 온기를 채워나가는 작업으로 평면작업을 하던 그전과 다르게 입체적인 양말 뜨기 작업에 들어간다. 더 복잡해진 입체작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양 끝이 뾰족한 대바늘 5개를 사용하며, 방향을 바로 알고 겉뜨기, 안뜨기를 정확히 알고 떠나가야 한다. 발목, 뒤꿈치, 발등=발바닥, 앞꿈치를 떠나갈 때 각 단계마다 각각의 다른 방법들이 등장하므로 아동들은 사고를 깨워 나가야 한다.

6학년: 땅으로 신체가 잘 내려왔다면 영혼의 아름다움을 채워나가야 한다. 영혼의 사춘기가 시작되므로 흑과 백, 어둠과 밝음이 공존하는 이 시기 아동들에게 동물 인형과 사람 인형 작업으로 영혼을 어루만져나가도록 도와간다. 평면에서 뒤집어지는 과정을 통해 놀라움을 발견하고 안으로 솜을 채워 넣어 입체적인 형태를 완성해 낸다.

7학년: 영혼의 사춘기가 저물어가고 몸의 변화가 오는 학생들은 자신의 변화에 적응하느라 흐느적거리며 자신의 발이 어디를 딛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므로 바닥을 잘 딛고 걸을 수 있도록 실내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나의 발을 관찰하고, 느끼고, 단단한 바닥에 딛고 서는 과정을 지속하여 신체를 인식하도록 도와간다.

8학년: 이전까지 자신의 두 손이 작업의 중심이었다면 8학년 과정은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즉 재봉틀을 익히고 다룰 수 있어야 하며 두 손의 조화로운 작업에서 손과 발의 조화로운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선생님 저 좀 들어가도 돼요?”

9학년

“선생님 저(희) 좀 들어가도 돼요?” 늘 혼자 일찍 오는 학생은 선생님을 첫 번째로 보거나, 재료를 먼저 준비하고 싶은 욕심쟁이.

방과 후에 여러 명이 우르르... 간식털이범이거나, 수공예 교사 영혼털이범들이다. 이들 모두 “적극적으로 세상과 이제 소통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인데... 그 모습이 아주 거칠거칠하여 귀엽지요. 외로움, 연애, 센-척, 그리움, 우정, 순수함, 우직함, 서운함, 화나는 모습을 결코 숨길 수 없는 9학년.

나무의 딱딱함이 물을 만나 부드러워지면, 날대로 뼈대를 세우고, 싸릿대는 면을 채워 바구니를 만듭니다. 아름다운 모양과 균형은 감각과 의지,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또한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아방가르드한 작품이 있어 더 행복한 바구니 만들기였답니다~

“날대와 싸릿대로 바구니를 만들지만, 그 사이에 빈 공간이 바구니의 본질을 만든다.”

10학년

“선생님 저 좀 들어가도 돼요?” 문이 열리며, 얼굴들이 신호등처럼 들여다본다. 자기 작업을 더 하고 싶거나, 가방을 두고 친구들과 춤도 추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영어 연극 의상 준비를 한다. 10학년은 다투기는 해도 싸우지는 않는다. 오히려 옛 추억을 더듬기도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며, 서로의 어깨, 등, 머리를 쓰담쓰담해 준다. 마을 사람들처럼…

목화나 양모에서 실을 잣고, 직조틀이나 베틀에 날실을 한 올 한 올 걸어 둔다. 이제 씨실로 시간과 공간 속에 자기만의 색/모양으로 천을 짜 올린다. 혼자 짜기도 하고, 둘이 짜기도 하며, 한 장의 러그와 벽걸이를 짠다.

“100일이 되는 날까지 절대로 문을 열지 마세요.”

11학년

그냥 문을 연다. 그렇다고 예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선생님 저 좀 들어가도 돼요?” 학교의 모든 곳에 11학년 아이들의 기운이 스미지 않는 곳이 없는 듯이, 자연스럽고 위엄 있게, 누린다. 마치 사바나의 잘 성장한 기린, 사자, 코끼리, 영양, 코뿔소, 표범, 물소들처럼… 온전한 손놀림과 힘, 자연스러운 예술성으로 종이를 자르고, 묶고, 화끈하게 표지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만들며, 어떤 이야기와 사건들을 이 책에 기록하여 남길 것인가?, 상상해 본다. 아!!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좋은 사람이니까… 근데, 뭐부터 해야 하나? 졸린다... 잠깐 쉬고, 쓩- 날아야지~

12학년

“똑 똑”

정중하게 노크를 하고, “선생님 저 좀 들어가도 돼요?” 하고 수공예실로 들어오는 12학년 학생들은 키 크고, 훤칠하며 다정다감한 청년들이다. 이유를 물으면, “그냥! 좀 쉬며, 숨 돌리고 갈게요” 한다.

졸업반 1년은 할 일이 참으로 많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잘 마무리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중이다.

내 몸에 맞는 의상 만들기(와이셔츠)로 12년의 수공예 수업을 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 생애에 얼마 남지 않은 수공예 수업이라며 너스레를 떤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듯 수업 시간을 한 땀 한 땀 새긴다. 심지어 제일 느렸던 학생이 모범생이 될 정도로… (물론 완성은 1년이 걸렸다) 우리의 삶 어느 순간에 새겼던 마음을 이 셔츠를 보면 기억할 수 있을까?